

번호: PO-MA-010					
제 목	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에 대한 의료서비스 공급자들의 인식과 태도 Health Care Providers' Attitude on Korean Health Care System				
저 자 및 소 속	박종연1), 강임옥1), 이용갑1), 서남규1), 구미경1), 이상이2) 1)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, 2)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Chong-Yon Park1), Im-Ok Kang1), Yong-Gab Lee1), Nam-Kyu Suh1), Mee-Kyung Koo1), Sang-Yi Lee2) 1) Health Insurance Research Center, NHIC, 2) Dept.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, Medical College, Cheju National Univ.				
분 야	의료관리 [보건의료정책 및 의료보장]	발 표 자		발 표 형 식	포스터
<p>목적: 최근 급격한 보건의료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가보건의료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비전과 발전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다. 보건의료부문의 정책수립 과정에는 일반국민은 물론 보건의료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어야 한다. 본 연구는 향후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발전방향 설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, 전문가 중 중요한 행위주체의 하나인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의 우리나라 의료체계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조사, 분석한 것이다.</p> <p>방법: 2005년 7-8월에 전국의 의사 등 5개 직종을 대상으로 보건의료자원의 개발, 자원의 조직적 배치,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및 의료서비스의 질 등에 관한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. 조사대상은 직종별로 지역과 근무기관 유형(병원, 의원)의 분포를 고려하여 설정하였으며, 최종응답자는 의사 884명, 치과의사 158명, 한의사 141명, 간호사 165명, 약사 158명 등 총 1,506명이었다.</p> <p>결과: 의료체계 전반과 관련하여, 응답자의 93.6%가 건강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고 있었으며, 건강과 질병문제의 책임소재를 국가와 사회라고 본 응답이 41.6%였으며, 우리나라 의료체도가 효율적이지 못하다는 인식은 71.6%에 달하였다. 이에 따라 의료체계 전반에 대한 만족도는 낮았고, 현행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25.2%,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56.9%, 전체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17.6%였다. 보건의료자원 실태에 대해서는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양호하다는 인식을 보였으나, 조직적 배치 차원에서는 미흡하다고 보았다. 서비스 제공체계 측면 중 공공과 민간부문의 서비스 분담체계에 대해서는 60.0%가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고, 이외에 진료 시 의사와의 상담, 응급의료체계, 질병예방과 건강검진체계에 대하여는 미흡하다는 응답이 많았다. 정부의 보건의료비 예산 규모 등 의료체계 차원에서 보건의료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인식을 보였는데, 특히 걱정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비율이 80-90%라는 응답이 43.0%로 가장 많았다. 정부의 이해당사자들 간 조정자 역할과 국민건강을 위한 비전 제시 등 의료체계의 관리 차원에서는 다른 부문들에 비해 부정적 인식과 태도가 뚜렷하였다. 건강보험 진료수가가 적정하지 못하다는 응답이 79.0%로 매우 높았고, 현행 행위별수가제에 대해서는 46.8%가 중립적이었고, 31.5%는 긍정적이었다. 한편,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개선을 위한 우선적인 목표로는 의료제도의 효율성 강화, 의료비 지출의 적정화,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, 형평성 제고의 순으로 응답하였다.</p> <p>결론: 이번 조사 성적과 자료를 토대로 향후 심층적인 연계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, 이를 구체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이나 정책전문가들의 시각과 비교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할 것이다.</p>					